

# The Mæssage

(“The Message” by Eugene Peterson 의 허계영 번역 version)

스바냐



출처가 따로 표기되지 않은 그림은 AI가 그린 그림입니다.

# 1 장

## 중단된 기도

<sup>1</sup> [해설] 다음은 스바냐에게 임한 하나님의 메시지예요. 스바냐는 구시의 아들이고, 구시는 그다랴의 아들이고, 그다랴는 아마랴의 아들이고, 아마랴는 히스기야의 아들이랍니다. 이것은 유다 왕 요시야(아몬의 아들)의 통치 시절 임한 메시지예요.

<sup>2</sup> [스바냐] 하나님의 선포라오.

[하나님] 내가 땅을 깨끗이 쓸어 버리련다.

이 땅에 대청소를 시행하련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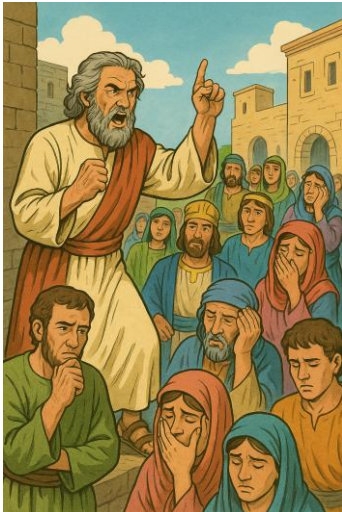
<sup>3</sup> 사람이든, 짐승이든,

새든, 물고기든,

죄를 짓는 거라면 뭐든 다 없애련다.

특히 사람을 중심으로!

\* \* \*



<sup>4-6</sup> [하나님] 유다부터, 예루살렘 주민들부터 시작해 주마.

바알 신전과 섹스교 제사장들을

흔적도 없이 깨끗이 쓸어 버리련다.

밤에 지붕 위에 몰래 기어올라가 ‘별 신’들한테 비는 자들,

나 하나님을 예배하면서

동시에 다른 ‘왕 신’들도 섬기는 양다리들을 쓸어 버리련다.

하물며, 나 하나님을 생각지도, 내게 기도하지도 않는 자들,

그렇게 날 완전히 버린 자들은 말해 뭐하겠니?

\* \* \*

<sup>7-13</sup> [하나님] 이제 모두 조용!

나, 주 하나님 앞에서 경건한 자세로 침묵하거라.

시간이 다 됐으니, 나의 심판날이 다가왔으니….

거룩한 날이 이미 정해졌고,

초대받은 자들도 이미 구별되었으니….

그 거룩한 날, 나 하나님의 심판날에

지도자들과 왕족들을 벌하련다.

이방의 남녀 사제들처럼 차려입고

이교도의 기도와 관습을 따르는 자들을 벌하련다.  
 이교도의 미신을 수입해  
 거룩한 곳을 지옥으로 만드는 자들도 다 벌하련다. 심판의 날에!  
 [스바냐] 하나님의 선포라오.  
 [하나님] 성읍의 ‘물고기 문’에서 공포의 비명이,  
 ‘도성 제 2 지구’(신도시^^)에서 두려움의 절규가 들려오는구나.  
 우르릉 쿵쿵... 엄청난 산사태 소리가 들려오는구나.  
 통곡하여라, 저잣거리 상인들아!  
 이제 돈벌이는 끝났다. ‘돈의 신’은 죽었다.  
 심판의 날,  
 내가 예루살렘의 모든 골목과 옷장 속까지, 구석구석 다 뒤지련다.  
 배불리 먹고먹는 자들, 게을러 터진 자들, 디룩디룩 살찐 자들,  
 제 한 몸 즐기며 천하태평인 자들을, 내 다 찾아내 벌하련다.  
 ‘하나님은 아무 일도 안 하시잖아? 좋은 일이건, 나쁜 일이건 아무 일도 안 하신다고!’  
 주님도 전혀 신경 안 쓰시는데 우리가 왜 굳이...?’라고 생각하는 자들아!  
 기다리거라. 너희가 가진 모든 걸 잃게 될 테니.  
 돈도, 집도, 땅도, 전재산을 잃게 될 테니.  
 집을 지어 봐도, 들어가 살지 못하고  
 포도를 심어도, 포도주 한 방울 못 마실 테니.

## 정오의 흑암

14-18 [하나님] 나 하나님의 대심판 날이 시작된다.  
 카운트다운 시간이다. 7, 6, 5, 4, ...  
 나의 심판의 날에 들려오는 쓰디쓴 울음소리!  
 상남자들조차 살려달라 비명을 지르는구나.  
 심판의 날 = 보복의 날 = 내 진노를 갚는 날  
 = 고통과 공황의 날  
 = 재난과 파멸의 날  
 = 정오에 흑암이 닥치는 날  
 = 검은 폭풍구름이 휘몰아치는 날  
 = 전쟁의 소리가 터지며 피가 엉겨 붙는 날  
 = 요새가 함락되는 날  
 = 방어선이 무너지는 날  
 내가 그 날을 그렇게 끔찍하게 만들 게다.



사람들은 무엇에 얻어맞았는지도 모른 채  
 눈먼 자처럼 더듬거리며 다닐 거다.  
 그들이 나 하나님에게 죄를 지었으니...!  
 그들의 피가 더러운 구정물처럼 버려질 거다.  
 그들의 내장은 냄새나는 오물통에 던져질 거다.  
 피난행 티켓? 그거 돈으로 못 사.  
 은행 잔고? 그게 다 무슨 소용이람?  
 이 날은 나 하나님의 심판의 날, 바로 나의 진노의 날  
 = 죄를 향해 내 열불이 나는 날  
 = 그 불로 부패한 세상을 태우는 날  
 = 타락한 인간들을 들불로 끝장내는 날

## 2 장

### 하나님을 찾으시오

1-2 [스바냐] 그러니 모두 모이시오. 마음을 다잡으시오!

그대들은 자신이 뭘 원하는지도 모르는 민족이군.

바람에 휘날리는 낙엽처럼

이리저리 휩쓸려 다니지 말란 말이요.

하나님의 진노의 심판이

그대들을 날려버리기 전에,

하나님의 심판의 날에

주님의 진노가 가차없이 닥치기 전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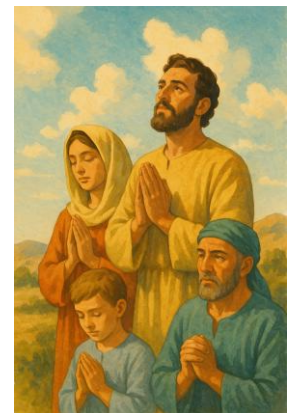
\* \* \*

3 [스바냐] 하나님을 찾으시오.

하나님의 정의에 따라 차분히 훈련받은 이들이여!

하나님의 올바른 길을 따르시오. 정숙하고 올바른 삶을 추구하시오.

그럼 하나님의 진노의 날에 그대를 숨겨 주실지도 모르니...



### 땅에서 만들어진 신들이 다 사라질 것이다

4-5 [스바냐] 가자는 철거 예정,

아스돗은 대낮에 대청소 예정,

에그론은 뿌리째 뽑힐 예정,  
 해안가에 사는 자들,  
 그레데 출신 항해자들은 파멸 예정!  
 하나님의 말씀이요. 썩 좋은 소식은 아니군.  
 가나안 땅 블레셋에 정착해 살고 있는 그대들을 향한 말씀이라오.  
 [하나님] 너희, 썩 다 망할 거야.  
 살아남을 사람, 아무도 없어!

\* \* \*

6-7 [하나님] 항해자들의 땅이  
 목초지로 변할 거다.  
 양치기, 양 떼의 땅이 될 거라고!  
 유다의 남은 자들이 그 땅 주인이 될 거다.  
 낮엔 바닷가에서 양을 치다가  
 밤이면 아스글론에 돌아와 잠 잘 거다.  
 [스바냐] 그들의 하나님께서 친히 그들을 돌보실 거요.  
 모든 걸 예전처럼 더할 나위 없이 좋게 회복시켜 주실 거요.



\* \* \*

8-12 [하나님] 모압이 지결인 막말, 암몬이 내뿜은 욕지거리,  
 내가 다 들었던다.  
 내 백성을 갈구던 그들의 잔혹한 말을 내 다 들었다고!  
 그들이 이스라엘 국경 근처를 거닐며  
 잘난 척하고 오만하게 굴던 걸 다 봤단 말야!  
 [스바냐] 이스라엘의 하나님, 천군천사의 하나님께서 말씀하신다오.  
 [하나님] 그래서 나의 살아 있음을 두고 맹세하는데,  
 모압은 소돔 같은 폐허가 되고,  
 암몬은 고모라 같은 유령도시가 될 거다.  
 하나는 돌밭으로, 하나는 소금밭으로,  
 영원히 달표면처럼 황량해질 거다.  
 내 백성 중 남은 자들이 가서 그들을 썩 다 정리할 거다.  
 그들을 철저히 골라낸 다음, 그 땅을 접수할 거다.  
 이것이 바로, 교만으로 잔뜩 부푼 그들이 치러야 할 대가란다.  
 나, 천군천사의 하나님의 백성을 조롱하고 비웃은 대가란 말이지.  
 그제야 비로소 나 하나님이 참으로 무서운 존재, 거룩한 공포로 여겨질 게다.  
 땅에서 만든 모든 신들? 우지직~ 쭈그러들어, 휘리릭~ 바람에 날려갈 게다.

그제야 비로소 모든 이들-멀리 있든, 가까이 있든-이  
땅에 엎드려 날 경배할 게다.  
너희 에티오피아 사람들? 니들도 끝났어.  
내가 직접 처리할 거라고!

\* \* \*

13-15 [스바냐] 그 다음, 하나님께서 북쪽으로 손을 뻗으시는구료.  
앗수르도 박살내실 거요.  
니느웨도 황무지로 만드실 거요.  
풀 한 포기, 나무 한 그루 없는 사막으로 만드실 거요.  
이제 니느웨는 유령도시  
= 야생동물의 소굴  
= 너구리와 코요테의 서식지  
= 짐승들이나 잠자리로 삼는 폐허  
창문마다 부엉이들이 우우~, 문간마다 까마귀들이 까악~  
화려했던 건물장식? 이젠 새들의 켓대.  
이게 바로 그 유명했던 유흥도시였나?  
그렇게 자랑하던 도시가 맞나?  
(니느웨) 내가 제일 잘 나가!  
바로 내가 이 세상 ‘원탑’이라고!  
[스바냐] 그러던 곳이 어찌다 이렇게 황폐해졌을까?  
어찌다 이런 들짐승 소굴이 돼 버렸을까?  
사람들이 지나가며 눈길조차 안 주는,  
손 한번 훑 짓고 지나가는, 이리도 무시 받는 도시가 돼 버렸을까?

## 3 장

### 하수구 도시

1-5 [스바냐] 큰일났구료! 반역의 도시,  
압제자들이 득실대는 하수구 도시여!  
충고는 귓등으로도 안 듣고,  
훈계는 개뿔로 여기는구나.  
하나님을 믿기는커녕,



자기 신한테조차 관심이 없구나.  
 지도자들은 배고픈 사자처럼  
 먹이감을 찾느라 눈에 불을 켜고,  
 판사들은 굶주린 이리처럼  
 매일 아침 새로운 사냥감을 찾아 나서네.  
 돈만 밝히는 예언자들? 틈만 나면 들이대는 기회주의자,  
 절대 믿지 못할 자들.  
 제사장들? 성소를 더럽히고  
 하나님의 율법을 무기 삼아, 술한 영혼을 불구로 만들어 죽이는 살인자.  
 그러나 하나님은 이 성읍 가운데서도 여전히 의로우시지.  
 세상이 아무리 썩어도 전혀 오염되지 않으시지.  
 낮에도 정의를 행하시고  
 밤에도 공의를 행하시는 주님, 변함없이 강하신 주님.  
 하지만 악인들은 양심도 없고, 수치도 몰라.  
 끝내 악을 일삼는 게, 멈출 생각이 없구나.



\* \* \*

<sup>6</sup> [하나님] 그래서 내가 사악한 민족들을 끊어 버린 거야.  
 그들의 초소를 무너뜨리고  
 도로를 돌더미로 메워  
 아무도 오갈 수 없게 만든 거라고!  
 폭격 맞은 성읍들은 폐허가 되어  
 사람이 살 수도, 살지도 않는 곳이 되었지.  
<sup>7</sup> 난 이렇게 생각했어.  
 ‘이젠 그들이 날 존중하겠지? 내 징계와 교훈을 받아들이겠지?  
 지금 겪는 고난에서 벗어날 길을 찾고,  
 내가 주는 형벌을 피할 길을 찾겠지?’  
 하지만 그들은 꿈쩍도 안 했어.  
 아침 일찍부터 하는 짓이 예전 버릇 그대로더라고. (제 버릇 개 못 주지^^)



<sup>8</sup> [스바냐] 하나님의 선포라오.  
 [하나님] 그래, 네가 원하는 게 그거라면, 그렇게 살아야지 어찌겠니?  
 하지만 기억하거라. 네가 법정에 설 날이 올 거라는 걸,  
 그때 내가 증거를 들고 나타날 거라는 걸...  
 내가 모든 민족을 법정에 소환하련다.  
 모든 왕국들을 불러내련다.

내 모든 분노, 나의 타오르는 진노를  
그들에게 보여 주련다.  
내 열정의 불,  
이 불로 세상을 깨끗이 태워 정화하련다.

## 하나님이 중심에서 다스리신다

9-13 [하나님] 하지만 결국엔 내 백성을 위해 모든 걸 바로잡아 줄 거란다.  
그들에게 왜곡되지도, 오염되지도 않은 언어를 줄 거란다.  
그 말로 나 하나님을 예배하며  
한마음 한뜻으로 나를 섬기게 해 줄 거란다.  
저 멀리 에티오피아 강 너머에서  
그들이 기도하며 찾아올 거란다.  
내 흩어졌던 백성들, 추방당했던 자들이  
예배에 드릴 예물을 가지고 고향으로 돌아올 거란다.  
이제 너희는 과거의 반역적 행동으로 인해  
더 이상 부끄러워하지 않아도 된단다.  
내가 너희의 교만한 지도자들을 싹 다 없앨 거란다.  
내 거룩한 산에서 거만 떨던 자들을 몽땅 다 정리할 거란다.  
대신 마음이 가난한 자들을  
너희 가운데, 그 한 중심에 남겨 둘 거란다.  
진짜 이스라엘을 남겨 둘 거란다. (겔만 번지르르한 이스라엘 말고^^)  
그들은 나 하나님 안에서 살 거란다.  
이 거룩한 중요인물들은 (VVIP 들^^)  
악을 저지르지 않을 거란다.  
거짓말도, 아침도,  
홀리는 말도 하지 않을 거란다.  
자기 모습 그대로 만족하며  
걱정 없이, 평안하게 살아갈 거란다.



\* \* \*

14-15 [스바냐] 그러니 딸 시온아, 노래하자!  
이스라엘아, 소리 높여 외치자!  
딸 예루살렘아,  
기뻐하며 축하하자!  
하나님이 네게 내리셨던 심판을 거두셨단다.



너의 적들이 꿈무늬를 빼고 도망갔단다.  
이제부터는, 하나님이 이스라엘의 왕이시란다.  
주님이 중심에서 친히 다스리신단다.  
그러니 이제 더 이상 악을 두려워할 필요 없단다.  
영원, 영원히!

## 하나님이 너희 가운데 계신단다

16-17 [스바냐] 예루살렘이 듣게 될 소식

“두려워 말거라.  
사랑하는 시온아.  
절망하지 말거라.  
너의 하나님이 너희 가운데 계신단다.  
너를 구원하실 강한 용사가 여기 계신단다.  
네가 돌아온 걸 기뻐하시며,  
그 사랑으로 널 달래시고, 그 노래로 널 즐겁게 하실 거란다.”

\* \* \*

18-20 [하나님] 그동안 너희가 감당했던 오랜 유배생활의 슬픔,  
이제 다 사라질 거야.  
내가, 바로 너의 하나님인 내가, 그 슬픔을 씻어 줄게.  
지금껏 지어 온 무거운 짐, 얼마나 힘들었니? (고마 하면 됐다^^)  
널 괴롭히던 자들, (일진들^^)  
내가 다 없애 주마.  
불구자들을 고쳐 주고,  
집 없는 자들을 집으로 데려와 주마.  
너희가 전에 미움받던 땅에서  
이제는 존경받게 해 주마.  
심판 날, 너희를 집으로 데려와 주마.  
대대적인 가족모임을 갖게 해 주마.  
너희가 온 세상에서  
유명해지고 존경받게 해 주마.  
너희 눈으로 직접 보게 될 거란다.  
그리도 아팠던 이별이, 이리도 기쁜 재회로 바뀌는 걸!  
[스바냐] 하나님의 약속이랴오.

